

글. 홍성표 본부 사업운영과 사진. 이만수 본부 사업운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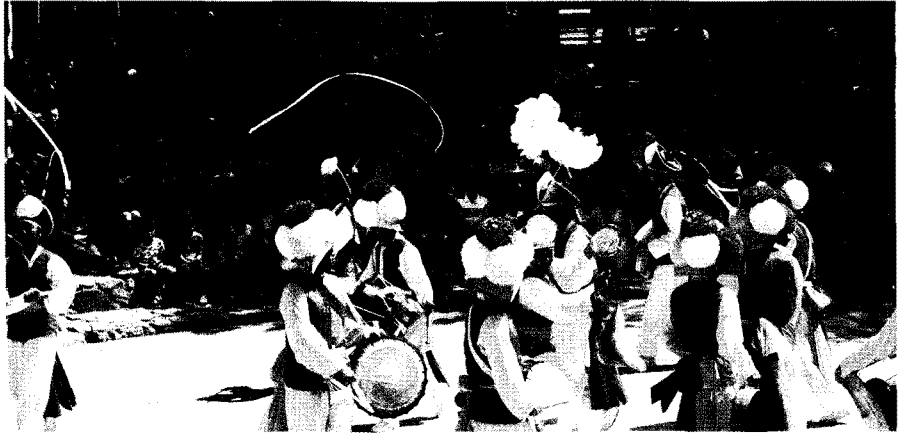
베트남 광남성 관계자 여러분의 방문을

Nhiệt liệt chào mừng Đoàn đại biểu Sa Y...
 한국결핵협회
 Việt Nam Lao Hàn Quốc



베트남 광남성 관계자 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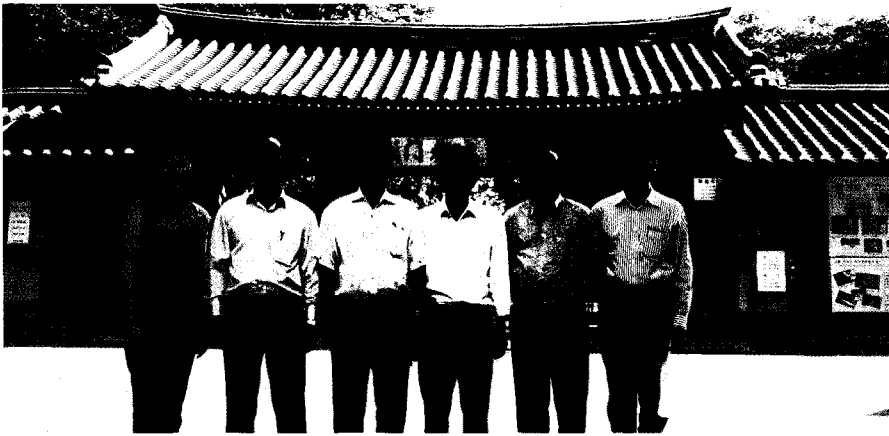




8월 20일 토요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황남성 인민의료청 관계자들이 우리협회에 방문하였다. 이는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중 현지 답사와 양해각서 체결을 목적으로 방문한 베트남 황남성 정부와의 세부적인 업무협의 및 지원 범위의 도출을 위한 답방인 것이다.

늦은 오후 8시에 도착하는 비행 일정. 우리 일행은 베트남어를 잘 구사하는 통역자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랜딩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에 모습을 보인 황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청 부감독, 결핵병원 감독, 보건청 실장, 탐기시의료원 감독, 의무청 실장 등 6명은 오랜 비행으로 피곤한 기력이 역력해 보였지만, 우리의 환대에 웃음으로 답변하였다.

이튿날 일요일. 조식 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민속촌으로 향했다. 옥내 전통민속생활 전시관, 마상무예, 농악공연, 줄타기공연, 한류열풍의 주역 드라마인 대장금 촬영 안내판 주위 등 가는 곳마다 사진기에 담고 있는 방한 일행의 발길이 멈추어 섰다. 우리의 전통놀이 투호던지기. 베트남 일행은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며 투호통에 화살을 던진다.



오후에는 대한결핵협회와 지구촌사랑나눔의 공동주체로 “2011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성남시청으로 이동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사는 세상! 결핵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각국의 문화체험부스에서 자국의 전통음식을 제공하고 참석자들을 위한 합창공연, 문화공연, 이주민들을 위한 가요제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방한 3일차, 대한결핵협회에 도착한 베트남 황남성 관계자들은 본부 전체직원의 환대를 받으며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어진 2층 회의실에서 우리협회의 사업 등을 소개하고 주요 방한 목적인, 양측간 결핵관리사업의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세부사항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시스템 체계, 최신의 결핵검사장비, 교육훈련방법 등 그들이 추진하려는 새로운 결핵관리사업과의 접목 및 로드맵 구성에 대한 어젠다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질의를 주고 받았다.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짧았던 회의 시간이 지나고 양측이 준비한 기념품 전달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후 다음날까지는 결핵연구원, 연꽃마을, 서북병원 등 결핵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결핵관리기술에 대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이 진행되었다. 현장 견학으로, 그들은 자국의 결핵감염예방과 퇴치사업 발전의 접목을 위해 고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금요일 아침, 베트남 황남성 일행은 대한결핵협회 본부에 도착하여 협회장 및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송별 간담회를 가졌다. 상호 우호증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진행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움이 남는 짧은 방한 공식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



우리나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시스템 체계, 최신의 결핵검사장비, 교육훈련방법 등 그들이 추진하려는 새로운 결핵관리사업과의 접목 및 로드맵 구성에 대한 어젠다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질의를 주고 받았다.

